

“민주 도시 광주 U대회 최적 정부 차원 전폭 지원하겠다”

李대통령, 실사단 점검 밝혀... 첫 프레젠테이션 “원더풀”

2015 U대회 광주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 광주 실사 첫날인 6일 평정부 차원의 전폭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대회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련기사 3면)

이와 함께 두 번째 U대회 유치에 도전하는 광주시는 이날 첫 프레젠테이션에서 국제대회 유치도시로서의 역량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스테판 버그 스웨덴 FISU 집행위원을 단장으로 한 5명의 실사단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초청면담,

한승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실사단과의 면담에서 “광주는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인 U대회와 이미지가 잘 맞는 곳이다”며 “광주가 U대회를 유치하게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광주는 민주화와 인권 문제와 관련,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도시”라며 “사실 타 도시에서 U대회 유치신청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겠으나, 광주는 특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라서 실사단을 초청했다”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시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평가 항목인 정부의 지원의지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오후 실사단이 도착한 광주공화에서는 400여 명의 학생, 시민들이 “최고를 향한 도전”이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Welcome FISU”, “We love FISU”를 연호, 뜨거운 유치 열기를 전달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광주를 방문한 스테판 버그 실사단장은 “광주에 1년 만에 왔는데 금방 다시 온 느낌이다”며 “대회 유치를 향한 광주시민들의 열기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차 프레젠테이션(PT)에서 지난해에 이어 U대회에 두 번째 도전하는 준비된 도시로서 확신과 가

능성을 심어줬다.

시는 지난 2013U대회 프레젠테이션과 달리 프레젠테이션에 스포츠 시설, 의료, 교통 등 각계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시는 비공개로 2시간 동안 진행되는 PT에서 광주시의 전반적인 여건과 법적 제도적 측면, 재정, 인프라 등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실사단은 7일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차 프레젠테이션을 갖고 광주·전남 15개 스포츠 시설을 점검한 뒤 KOC(대한올림픽위원회)와 KUSB(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주최하는 오찬과 같은 날 오후 6시 박광대 시장과 정의화 유치위원장이 주재하는 환영 만찬에 참가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실사단 청와대 초청한 李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후보 도시인 광주 실사를 위해 방한한 실사단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대통령 “PSI 참여 적극 검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北 로켓 발사와 상관없이 추진키로

이명박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등 여야 3당 대표와 조찬 회동을 갖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는 관계없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테러방지 등 국제협력 차원에서 검토되는 사안”이라며 “(전면 가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

가 PSI 전면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PSI 가입은 우리

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로켓)발사를 했다 해서 바로 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나는 (대북) 강경주의자가 아니며 실용주의 입장에서 북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경색에 대해 “전 정권의 책임, 현 정권의 책임을 따지고 할 게 뭐가 있느냐”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면 되며, 햇볕정책의 취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정부의 PSI 가입을 적극 찬성할 반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신중론과 함께 남북간 대화 단절과 관련, 현 정부 책임론을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유엔 안보리 결론 못내... 오늘 논의 계속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6일(한국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 첫 날 협의가 서방 세계와 중국·러시아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종결됐다.

(관련기사 5면)

안보리는 비공개 전체회의 및 소그룹 회의 등을 통해 7일(7)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양 측간 견해차가 커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보리는 이날 3시간 동안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15개 이사국이 모두 각국의 입장을 개진했으며, 대북 비

판과 관련한 의장의 언론 회견 문구 놓고 일부 격론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지난 2006년 북한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 1718호에 규정된 ‘탄도미사일 개발 금지’ 조항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도높은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는 주권국의 우주영역 탐사로 봐야 한다면서, 결의안 위반이 아니라고 주

장했다. 이들의 입장에 동조한 안보리 이사국은 리비아, 베트남, 우간다 등 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관은 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 분위기는 10대 5로 갈랐다”고 전했다. 미·일 등의 주장에 동조한 국가가 10개국이고 반대 국가가 5개 국가라는 의미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고위 관계자는 “회의는 서로 자신들의 입장을 교환했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논의의 속도를 내기 위해 의장국이 소그룹 회의를 통해 수시로 협의를 진행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일 여자배구 진정한 챔피언 가린다



한국팀은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고 있는 흥국생명파 GS칼텍스가 출전하며 일본팀은 전종의 강호 히사미츠 스프링스와 돌풍의 주역 도레이 에어윙스가 출전합니다. 배구팬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흥국금융그룹배 한일 V리그 탐 매치

- 전종의 라이벌 한국과 일본 여자배구의 왕중왕을 가리는 빅 매치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 광주일보사와 광주시 배구협회, 한국 배구연맹은 광주일보 참가 57주년을 맞아 한일 여자 프로배구의 4대 천왕이 맞붙는 국제배구대회를 개최합니다.
 - 2008~2009 시즌 한일 양국 각각의 프로배구리그를 통해 가려진 1, 2위 팀이 모여 이틀간 승부를 가리는 이번 대회는 전종의 국민스포츠 배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국제스포츠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큰잔치가 될 것입니다.
- 일시: 4월 18일(토) 오후 2시, 19일(일) 오후 1시
 - 장소: 광주 염주 종합체육관
 - 입장료: 일반 5천원, 학생 3천원 (경기장 발매, 사전구입문의는 222-0542)
 - 주최: 한국 배구연맹
 - 주관: 광주일보사, 광주시 배구협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체육회,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 협찬: 흥국 금융그룹 HeungKuk Finance Group

光州日報社

오늘 신문의 날... 내일자 신문 쉽니다

제1회 세계슬로우걷기축제

The 1st World Slow Walking Festival

2009년 4월 18(토) ~ 4월 19(일) 09:00 ~ 17:00 (토요일) PM 20:00(일요일) 신지평사(서점)

1일차 18일 18:00 ~ 원도 순지평사(서점), 배편 공문, 행사, 세계슬로우걷기유치위원회 함께-민치 행사상, 송문문서(서) -공관보, 프랜, NCC(기독교) 등 후원

2일차 19일 18:00 ~ 일산도 2009년도 슬로우걷기유치위원회, 세계슬로우걷기유치위원회 함께-행신도, 연인제 기념식

행사 순지평사(서점) 프로그램은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행사도, 선박무로이벤트는 조기종료 되었습니다. 많은 참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SLOWCITYWALK.COM
- 전화문의: 061-555-5500/5550
- 주: 최: 원도, 내사(계)연인(계)공문
- 후: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연인(계)도, 한국문화재단(계)도, 연인(계)도